

대행 스님

잘나고 못나고 이걸 따지기 이전에 모두가 둘이 아님을 알라

(어느 스님께서 성불했느냐고 물으매 말씀하심) 석존이 계실 당시에도 석존의 제자나 석존이 어디 가시면 돌팔매질을 하고 머리를 깨뜨리고 제자를 죽이기까지 했답니다. 그것은 너무 질투가 심하다 보니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알고 이것을 논의할 때가 못 됩니다. 또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이걸 따지기 이전에 모두가 둘이 아님을 안다면 그 또한 나인 것을 왜 질투가 생기는 겁니까? 여자고 남자고 우리 한 집안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저 딸이든 이 아들이든 한가족입니다. 누구라도 좀 더 잘해서 잘되기를 바라는 어버이의 마음은 아마 누구나가 다름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말로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는 한갓 웃음밖에 안 나는군요.

예절을 똑바로 지켰든 안 지켰든 나이기 때문에 그 참 억설로 나오는 말이지만 공손히 대답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모릅니다. 가르쳐 줘도 모르는 걸 어떡합니까?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 말이 있기 이전이 있다면 말을 하게 되고, 말이 있기 이전에는 반드시 행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고 여기 오셨습니까? 걸어올 때 말을 하고 걸어오는 게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났을 때, 일을 할 게 있을 때 그때에 이제 찰나찰나 나투면서 말을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입장에서, 배우기보다도 나를 알라는 그런 뜻에서 얘깁니다. 나를 먼저 알라는 얘깁니다. 나를 먼저 모르면 저런 행동이 나오고 무리한 일이 나오고, 생활에 보탬이 없고, 공덕과 복덕을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대에 이 도리를 알지 못하고는 앞으로 살아나가기가 힘들다는 거를 내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나한테 설법을 하게끔 만들어 주고 가는군요. 그것도 고맙군요, 또. 허허허. 참 뭘로 보나, 이걸 봐도 설법이 되고 저걸 붙여도 설법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사는 생활이기 때문이죠.

초발심에서 우리가 이 도리를 감응을 하고 또 감을 잡아서 나가려면 내가 항상 주인공에다가, 요 말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서 하는 겁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그냥 여러분이 매일 들어도 그것이 알쏭달쏭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항상 그 말은 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주인공에다가 맡겨 놔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인공에 맡겨 놓으니깐 잘됩디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활하는 데 그렇게 좋고 편안함이 없습니다." 그러곤 나가다가 어느 땐가 또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전엔 잘되더니 지금은 안됩니다." 이겁니다. 그래 나는 그랬습니다. "안 되는 것도 배워야지 되는 것만 안다면은, 안 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양면을 걷어잡고 굴릴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안 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겠죠?

요렇게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린애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사는데 어린애가 철모르고 덤벙덤벙, 지금 서너 살짜리가 뛰어갑니다. 그런데 가면은 구덩이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 어린애는 가고 싶어 갑니다. 그런데 어른은 구덩이에 빠지겠으니까 붙들어서 안전한 곳으로 끌어다 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것도 부처님 법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깨달아야 할 과정을 거쳐야 할 분인데, 즉 말하자면 어른이 다 된 것처럼 "왜 아버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놔두지 않고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실는지도 모르지마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 안 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입니다.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죽인 것도 무명을 쳤다고 해서 죽인 게 아니라 그것도 살린 거라 이 소립니다. 살리는 것도 살리는 거고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겁니다. 이 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기에 이런 말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 되는 거를 모두 맡겨 놔라, 몰락 놔라 하는 이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수억겁 광년을 거쳐서 진화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나오면서 살던, 자꾸 몸을 바꿔 가면서 살던 습이 그냥 잠재의식에 얽히고설켜서 뭉쳐 있으니 그건 종 문서와 다름없다 이겁니다, 양반집의 종 문서. 만약에 그 종 문서를 불살라 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양반집의 종으로 대대손손이 그건 떠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그것을 닥치는 대로 놔라. 우리 지금 요것이 알쏭달쏭한 문제가 되겠죠. 그것을 판단을 잘하실 것 같으면 가늠이 되고 그것이 감응이 오게 되면 바로 나를 내가 발견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본래 빈 그릇을 본래 빈 그릇이라고 알았을 때, 빈 그릇이 아니라 꽉 찬 그릇입니다. 왜 비었다고 했고, 왜 무(無)라고 했는가?

우리는 한 발짝 뗄 때 쉬지 않고 떼어 왔습니다, 지금. 걸어왔습니다. 쉬지 않고 걸어올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앞발은 아직 떼어 놓지 않았으니까 없고, 뒷발은 떼어 놨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공이 없다는 뜻도 알게 되고, 우리는 꽉 찼는데 이렇게 나투어서 하루살이로 이렇게 떼고 가니까 발이 붙지를 않는 겁니다. 고정되게 붙지를 않는다.

왜, 눈이 왔는데 미끄러져서 아주 유리알 같을 때에 발을 오래도록 거기 붙인다면 미끄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자주자주 떼어서 발이 그 얼음판에 딱 붙질 않는다면 그건 넘어질 리가 없습니다. 제가 그거 경험을 해 봤는데요, 아주 가파른 미끄러운 얼음판에 언젠가 한번 제가 뛰었습니다. '야, 이거 발이 붙으면 미끄러지겠구나.' 해서 거기를 그냥 뛰었습니다. 막 뛰니까 발이 미끄러질 새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미끄러질 새가 없이. 고정되게 거기 못 박히듯 그냥 박혀 있는 거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럴 사이가 없이 지금 한 발 한 발 떼어 놓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빈 그릇이 아니라 꽉 찬 그릇입니다. 꽉 찼는데 한 발 한 발 떼어 놓고 돌아가서 이렇게, 그전에도 말했지만 애들 만날 때는 그냥 스스로 마음이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도 달라지고 또 아버질 만날 땐 딸로서 생각나고 아들로서 생각나고 행도 나오고 말도 나옵니다, 스스로 누가 그렇게 하지 말래도. 그건 왜? 나한테 그 오관을 통해서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묘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을 사이 없이 한 발 한 발 떼어 놓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보배를 그렇게,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오관을 통해서, 오신통을 수레바퀴라고 한다면 그것을 굴리면서, 또 내 마음의 운전수를 만약에 누진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책정을 하면서 굴러갈 땐 굴러가고 참견할 땐 참견하고 이렇게 올바르게 구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이거는 굴러가지 않는 건가? 그것도 굴러가는 거, 이것도 굴러가는 거, 잠자는 것도 굴러가는 거, 모든 게 전부…. 일 초도 쉬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떼어 놓으면서도 찰나찰나 나투어 돌아가는 이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배를 누구나가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거,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어디로 넘어가야 하느냐. 지금 우리 지수화풍으로서, 끈을 잇기 위해서 그 말을 또 합니다. 지수화풍이 전체 가늠할 수가 없이 헤어져서 생명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한데 합쳐지니깐 어떠한 거를 조성해서 형성시켰습니까? 생명을 형성시켰습니다. 아주 위대한 생명을 형성시켰죠. 바로 지수화풍이 형성을 시켰습니다, 이 몸을. 일체 만물에 대한 그것을 형성시켰다 이겁니다.

그건 어디로부터? 그것이 바로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위대한 마음으로부터 한생각에 의해서 그 모든 미생물이 났다는 얘깁니다. 미생물만 난 게 아니라 무정물도 식물도 다

☞ 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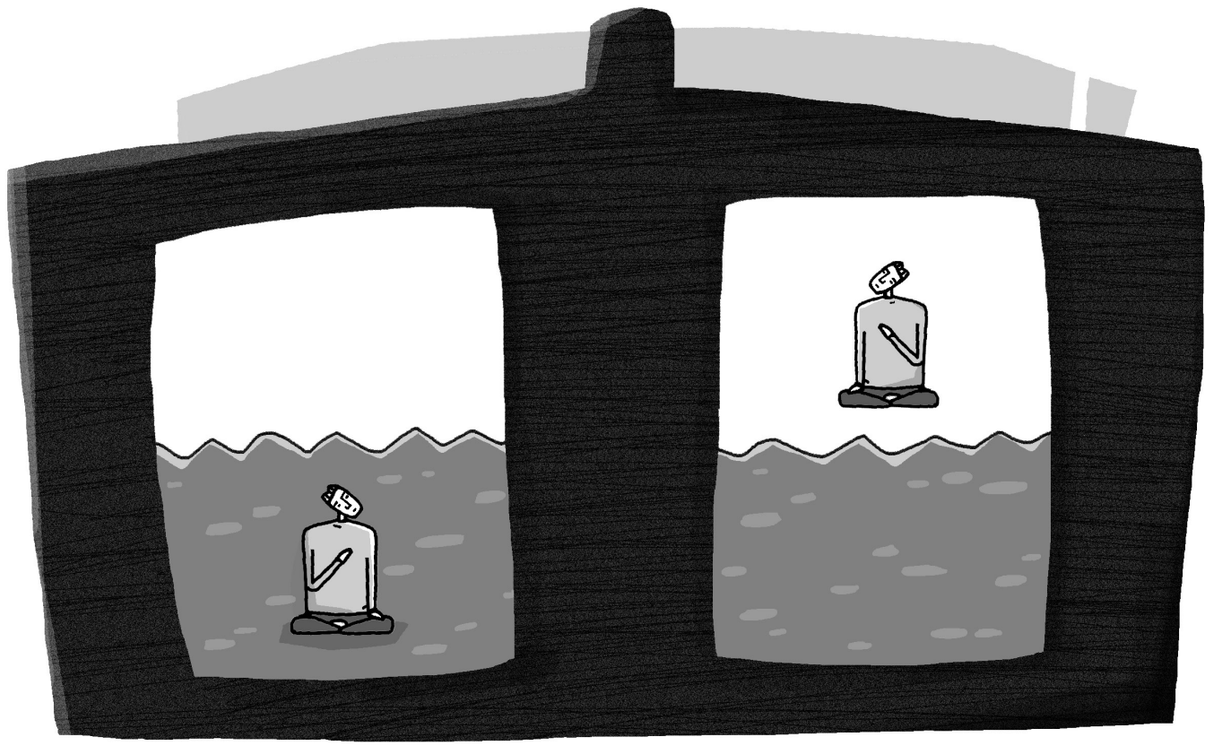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